



수입원 : 캄피아 (02)717-4274

- 가격 : 1,800만원 · 재생 포맷 : CD, CD-R/RW · D/A 컨버터 : 24비트 · 오버샘플링 : 8x(352.8kHz)
- 대역폭 : 20Hz-20kHz · S/N비 : 108dB 이상 · THD+N : 0.003% 이하 · 채널 분리도 : 90dB · 아날로그 출력 : XLR, RCA
- 출력 레벨 : 1 또는 3.5V · 디지털 출력 : AES, S/PDIF, Toslink · 소비 전력 : 6W, 12W(최대) · 크기(WHD) : 31x7.6x25.4cm · 무게 : 4kg

Nagra CDC

생동감 넘치는 스위스의 정밀한 음향 시계

글 | 박성수

나그라의 기기들을 볼 때마다 필자는 모리스 라벨이 떠오른다. 스위스 국적의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보고 프랑스의 작곡가가 떠오른다고? 망발이 심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오해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라고 하지 않고 라벨이라고 했으므로... 그런데 왜 라벨일까? 그것은 바로 라벨을 두고 스트라빈스키가 한 말 때문이다. 오래 전 필자는 라벨의 무용 교향곡 '다프니스와 클로에'를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스트라빈스키가 ‘가장 완벽한 시계 제조업자’라고 했던 라벨은 이 작품에서도 실제 연주에서 얻어질 결과와 감동의 폭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그 특유의 명료하면서도 투명하며, 정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음향을 완벽하게 직조해 내는 모습을 보여 준다. …(중략)… 무엇 하나라도 빠진다면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정교한 시계!” (굵은 서체 필자)

이상의 인용문에서 ‘라벨’을 ‘나그라’로 바꾸어 읽어 보면 어떨까? ‘가장 완벽한 시계 제조업자’의 이미지를 풍기는 프로용 장비 및 하이엔드 오디오 회사, 그리고 ‘무엇 하나라도 빠진다면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정교한 시계’ 같은 디자인과 ‘깔끔하면서도 명료한 텍스트처를 보여 주는 균형 잡힌’ 정묘한 음향의 완벽한 균형을 추구하는 스위스 회사가 나그라라고 하면 어떨까? 특히 이번에 필자가 시청한 나그라의 프리앰프 겸용 CD 플레이어인 CDC의 여러 기능을 조작할 때 느껴지는 상큼한 감촉,



특히 디스크 트레이가 작동될 때 들리는 사각거리는 금속성 음향은 라벨과 나그라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생각이 든다.

CDC는 본격 리뷰 무대에서 필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나그라의 제품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CDC에 대한 필자의 첫 인상부터 먼저 밝히고,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본지 4월호에서 정승우 선생이 CDC에 담긴 기술 내용을 검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디자인과 음향에 무게를 두고 싶다.

정승우 선생이 설명한 것처럼, CDC는 실리콘 서스펜션으로 플로팅한 필립스의 CDPRO2M 메커니즘을 나그라 모노블록 트레이라는 드로어에 수납하여, 트레이를 로딩할 때 메커니즘 전체가 움직이는 독특한 설계를 채용하고 있는 플레이어이다. 이 플레이어는 지터 성분을 측정

한계 이하로 억제하는 퀴츠 발진 회로를 채택한 레퍼런스 클록 제네레이션과 두 조의 버브라운 DAC 칩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출력은 언밸런스·밸런스 각 1계통, 디지털 출력은 AES·S/PDIF·Toslink 각 1계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CDC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도시락 크기의 작고 묵직한 새시에 프리앰프와 플레이어의 조작을 위한 노브와 스위치들을 극도로 단순한 형식으로 배치하여 조작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깔끔한 디자인일 것이다. CDC는 알루미늄 재질로 된 패널의 정중앙에 출력 레벨 미터, 그 오른쪽에 볼륨과 CD 기능 조작용 노브, 그리고 패널 하단에 좌우 음량 밸런스 조절용 노브, 그리고 패널 우측 상단에 CD 트랙 서칭용 스위치,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트레이의 계폐 조작·헤드폰 출력 선택을 위한 두 개의 스위치 등을 배치하고 있는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플레이어와 프리앰프를 통합한다는 것은 애호가들이 플레이어와 프리앰프를 따로 고를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프리앰프 파트가 생략된 CD 플레이어

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이번 시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자는 나그라에서 CDC 같은 독특한 형식의 플레이어를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나그라가 추구해 온 당당함과 정연함, 명쾌함과 섬세함, 중량감과 개방감 등이 정연한 조화를 음향을 CDC·PMA 조합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거침없이 음향을 방사하는 듯하지만 절제력과 집중력이 살아 있는 탄력 넘치는 음향 조형 능력, 그리고 거시구도와 세부구도 사이의 정연한 균형을 이끌어 내는 정합성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한편에서는 작지 않은 스케일을 구현하는 확고한 테두리와 청명한 분위기로 채색된 음향 무대를 연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 세부 표정 하나하나를 명쾌하게 제시하는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CDC와 PMA는 나그라의 기기들인 동시에, 최근 오디오 강국의 이미지를 만천하에 선양하고 있는 스위스 오디오의 당당한 일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생동감이 넘치는 정교한 음향 시계'를 추구하는 스위스 오디오의 일원 말이다. **A**

데, 일반 플레이어와는 시각을 달리하는 기능 배치로 인하여, 익숙해지는 데 얼마간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처럼 깔끔한 디자인은 그저 보고만 있어도 바로 내가 나그라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견고함·정밀성·안정감 등을 동시에 수렴하는 나그라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은 절대로 한 날 한 시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1960·70년대 전 세계의 영화 제작 현장에서 잭 니콜슨·알파치노 같은 명배우들의 실제 음성을 담아내던, 언뜻 작은 도시락을 연상케 하지만, 그와 동시에 스위스 고급 시계를 떠올리게 하는 정교하고 정확한 기계의 냉철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프로용 장비의 이미지를 하이엔드 오디오에 접목하는데 성공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CDC는 어떤 음향을 들려주는가? 본지 특집을 위하여 필자는 CDC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프리앰프 겸용인 CDC 플레이어를 나그라의 PMA 파워 앰프에 직결하고, 이들 기기의 조합에 랭세 No 4.1 스피커를 연결하여 시청 작업을 진행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프리앰프 겸용 플레이어인 CDC는 양날의 칼 같은 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시청에서 CDC·PMA 조합, 그러니까 플레이어·프리앰프·파워 앰프를 나그라 풀 세트에 묶는 조합은 그 자체로서 완성된 세계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유기적 통일성과 집중력이 뛰어난 음향을 연출하고 있었다. 각 파트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음향 스타일의 착종(錯綜)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일사분란하지 못한 발성과 음향 조형으로 인하여 음향의 스케일과 골격이 희미해지고, 발성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따위의 문제점을 이 조합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구동하기 그리 쉽지 않은 스피커인 랭세 No 4.1에서 당당한 표정의 음향을 이끌어 내는 모습은 이 조합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처럼 통일성·집중력·구동력 등이 뛰어난 음향은 소스와 프리앰프 파트를 일체화한 데서 오는 이점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플레이어·프리앰프·파워 앰프를 일체화하는 리시버 앰프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급기종에 채택하는 방식이지만, 리시버에서 파워 앰프를 제외한 변형 리시버라고 할 수 있는 CDC의 기능 통합 방식은 리시버 방식의 단점을 지양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역발상의 하이엔드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다. 소스와 프리앰프의 기능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성 열화 같은 문제점을 지양하고, 스위스 기술 전통이 추구하는 소형화와 정밀성을 토대로 하여, 기능 통합이 지향하는 효율성·통일성·신뢰성 등과 같은 장점을 극대화하여 하이엔드 음향을 연출하고자 하는 전략이 CDC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CDC와 같은 독특한 형식의 기기는 범용성이

